

미술 걸작을 감상하는 방법



홍경안 역
시시일각

미술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석기시대 암각화부터 오늘날의 디지털 아트에 이르기까지 미술은 언제나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며 끊임없이 변모해 왔다.

르네상스는 인본주의(Humanism)적 사유와 과학적 발견이 함께 꽃핀 시기로,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라파엘로(Raffaello Sanzio)와 같은 거장들이 즐비했다. 이들은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며 조각과 회화, 건축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방법론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로 탄생한 작품들은 인간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불후의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지는 바로크(Baroque)와 로코코(Rococo) 시대의 미술은 감정과 움직임, 화려함과 섬세함을 특징으로 한다.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나 루벤스(Peter Paul Rubens), 베르메

르(Johannes Vermeer)와 같이 현실감 있는 색채와 구도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 예술가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극적인 순간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고, 미술이 감동 이상의 심리적 깊이와 영혼을 투영하는 매체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9세기는 미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혁명적 여명기였다. 프랑스 혁명(1789-1799)과 산업혁명의 여파로 급변하던 사회적 환경 속에서, 미술은 재현 수단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주관과 내면을 표현하는 도구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무엇보다 19세기 미술의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은 예술의 자율성과 실험정신이다. 살롱과 같은 공식 미술 기관의 승인 없이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한 화가들의 용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실험과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들이 보여준 관습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미적 가치 탐구는 현대미술의 다원적 성격을 형성한 원동력이었다.

물론 19세기 이후에도 혁신적인 예술의 진보는 지속되었다. 20세기에 피카소와 마티스(Henri Matisse), 달리(Salvador

Dali), 뒤샹(Marcel Duchamp) 같은 아방가르드(avant-garde) 예술가들이 등장하면서 미술은 더욱 다채로운 실험과 혁신의 장이 되었다. 입체파(Cubism), 추상 미술(Abstract Art), 다다이즘(Dadaism), 초현실주의(Surrealism) 등의 새로운 사조가 속속 등장하며, 미술은 그저 눈에 비치는 형식적 아름다움을 넘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성찰의 도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전후 현대미술은 각종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반응하며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변혁의 힘을 지닌 매체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증명했다.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 앤디 워홀(Andy Warhol)의 팝아트(Pop Art) 등은 예술의 범위를 확장했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미적 경험을 선사하며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미술은 감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형상화하는 창조적 행위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들을 살펴보면 미술의 변화와 발전을 한눈에 파악하고,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미술평론가

대출규제와 생산적 금융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빠르게 기업 쪽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증가세로 돌아섰고, 겉으로만 보면 금융의 무게중심이 '생산'으로 옮겨가는 듯한 모습이다. 정책 당국이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증가한 숫자만으로 금융의 방향 전환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세부 흐름을 보면 대출 증가분은 주로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에 집중됐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더욱 민감해진다. 담보가 충분하고 재무구조가 안정된 차주에게 자금이 물리는 것은 어

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연체율 관리와 건전성 지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책의 의도와 자금의 실제 흐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금융당국은 포용과 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 지방 중소기업이나 기술 기반 기업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담보와 과거 실적을 요구받는다. 미래 성장 가능성보다 현재의 안정성이 우선되는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금이 필요한 곳과 실제 자금이 향하는 곳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크다.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기업대출이 늘었다는 단순한 수치 변화는 정책 성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취약한 기업이 자금을 통해 도약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기업대출 확대는 결국 안전한 차

주 중심의 자산 재배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총량 관리가 아닌 방향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과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뒤따라지 않는다면 '생산적 금융'은 구호에 머물 수 있다. 기술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보 중심 심사 관행을 보완하며,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대출의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기업대출 증가가 통계상의 성과로 남지 않으려면, 자금이 실제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과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금융정책이 되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은 말이 아니라 흐름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5일 (음 1월 9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부부가 함께 나들이를 가면 좋습니다. 60년생 새로운 일을 착수하거나 시작하세요. 72년생 자신을 희생하면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84년생 추진하던 거래나 계약이 성사될 듯 합니다.



49년생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면 안됩니다. 61년생 현재 일보다는 새로운 일이 좋습니다. 73년생 친구나 동료를 만나면 즐겁습니다. 85년생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50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잡날이 없습니다. 62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4년생 거래가 성사되거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86년생 문서에 인연이 있으니 희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51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정진하세요. 63년생 옛친구나 동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75년생 내가 속한 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87년생 허황된 욕심보다는 현실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52년생 너무 쉽게 믿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4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76년생 주위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88년생 이성운, 금전운 모두 좋은 하루입니다.



53년생 웃음이 만발하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65년생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겠습니다. 77년생 다칠 수 있으니 행동과 안전에 주의하세요. 89년생 이성과의 싸움은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54년생 명예와 인기가 모두 좋습니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집니다. 78년생 부부나 이성운이 좋고 사업방면에도 희소식이 있겠습니다. 90년생 일에 대한 마무리와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5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잘 풀립니다. 67년생 고집보다는 주위의 조언을 듣는게 좋습니다. 79년생 갈등이 있던 사람과 화해하게 됩니다. 91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더 큰 것을 얻습니다.



56년생 명예가 오르는 하루입니다. 68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의 풀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80년생 가족때문에 신경을 많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가족이나 지인에게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69년생 서두르면 후회하니 신중하세요. 81년생 되로 주면 말로 받으니 언행에 주의하세요. 93년생 식복이 있으니 대접을 받거나 접대를 하세요.



58년생 명예가 오르는 길한 하루입니다. 70년생 부부와 가족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82년생 사업운이 길하고 사세가 확장될 것입니다. 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휴식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71년생 돈 쓸 일이 많아지고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3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5년생 모든 것이 평탄한 하루입니다.



김상회의四季 액막이 기도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피흉취길(避凶取吉)이 목표다. 특히나 우리나라 삼천리는 음력 정초가 되면 이집 저집 할 것 없이 집안 이런저런 방편을 쓰는데, 민간에서 인기 있는 액막이 방편의 하나로서 음력으로 정월 보름 안에 행하는 흥수막이라 불리는 의식은 새해를 맞는 우리 중생들이 일 년간 다가오는 나쁜 일들을 막아내는 방편으로써 주로 무속인들이 행하곤 하였다. 무속인들에게 가는 것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입춘대길 또는 건양다경과 같은 첩지를 받아와 대청 기둥이나 대문에 붙이고, 입춘 기도 후에 나눠주는 팔알이나 오색실을 받아와 집안 곳곳에 뿌리거나 걸어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선조들은 역사적으로 전쟁도 많았고 인간사 고(苦)가 본질인지라 정월부터는 물론이고 달마다 이런저런 명칭을 붙여 액막이에 진심이었다.

정월에 드는 액은 이월 영등으로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 삼짇날 기도로, 삼월에 드는 액은 사월초파일에 막아내며,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로 막아낸다. 그래도 액막이의 으뜸 시기는 정월이다. 오죽하면 정월 초사흘부터 시합이라도 하듯이 대보름까지 각 가정에서는 위에 말한 흥수막이 의식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적이라도 받아와 베킷속이나 속옷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어 차고 다니게도 했다. 이 전통은 과거만 큼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지금도 대도시에 속하는 수원의 영동시장 거북산당에서는 정초가 되면 줄을 잇다시피 하며 도당 곳이며 액막이 의식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예전만큼의 문전성시는 아니지만 사실 영동 거북산당 도당국은 200여 년간이나 유서 깊게 전해 내려온 지역의 전통 곳이지 않던가. 지방의 어떤 곳은 정초에는 꼭 당제는 올리는데, 그러지 않으면 시장에 불이 난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6	5	
6			1	3	7
	1	3		8	
4	7			9	
7			3	1	
1		8		5	
8	6	7	4		1
	5	6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4	6	1	9	7	9	8
1	8	6	9	2	7	4	9	8
9	7	9	4	8	8	6	1	2
9	1	7	8	9	2	8	2	6
4	9	8	7	6	1	2	8	9
8	6	2	8	9	4	9	7	1
7	8	9	2	8	9	1	6	4
2	4	8	1	7	6	9	8	9
6	9	1	9	4	8	8	2	7

2	6	8	9	1	9	4	8	7
9	9	8	2	7	4	8	1	6
4	7	1	8	6	8	9	2	9
6	8	7	4	8	9	2	9	1
1	8	4	9	2	7	9	6	8
9	9	2	6	8	1	7	4	8
7	2	6	8	4	8	1	9	9
8	4	9	1	9	6	8	7	2
8	1	9	7	9	2	6	8	4